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돌봅니다



2011년부터 청개구리 밥차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아 대표.

밤늦은 시간, 이정아 대표의 전화가 올랐다. 낯선 여자아이는 자신이 곧 아이를 낳을 것 같다면서 부모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산모와 태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정아 대표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게 해줄 테니 병원에 가라”고 선의의 거짓말로 설득했다. 주저하던 아이는 아침이 되어서야 병원에 입원해 무사히 출산했다.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에게 상처받거나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정서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그 아이도 제 말을 믿었다기보다 아프고 무서우니까 따라준 것 같아요.”

사실 이정아 대표에게 한밤중의 전화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찰, 소년원, 병원, 청소년 생활시설까지 그의 도움을

구하는 전화가 수시로 온다. 가까이는 부천에서, 멀리는 제주도에서도 연락이 온다. 이정아 대표는 어디든 달려가 아이들의 편에 서고, 아이들도 순순히 마음을 열고 곁을 내어준다.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는 이정아 대표가 정성껏 준비한 밥 한 끼, 그 온기에서부터 시작됐다.

따스한 밥 한 끼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다

이정아 대표는 소외된 청소년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를 발족하고 2011년 부천역 인근 공원에서 무료급식 ‘청개구리 밥차’를 시작했다. 매주 두 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여는 청소년을 위한 심야식당이다.

“부천역 광장은 학교를 벗어나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때가 탈선을 막고 가정과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아이들과 가까워질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지요. 음식도 현장에서 만들고요.” 이정아 대표의 생각은 적중했다. 밤이슬을 맞으며 거리를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간이 천막 아래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30인분을 준비하던 음식은 금세 두 배, 세 배로 불어났고, 따스한 밥과 사람의 온기로 허기를 채운 청소년들은 이정아 대표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다.

이정아 대표는 청소년들이 언제든 방문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2016년 부천역 인근 건물 공간을 빌려 ‘청개구리 식당’을 열었다. 평일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항상 열려있어 청소년들의 식당, 카페와 모임장소 역할도 하고 있다. 이정아 대표와 청년활동가들이 상주하며 매일 25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식사는 물론 보드게임, 상담 등을 하며 자유롭게 지낸다. 이정아 대표는 타로카드를 봐주며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소통한다.

“우리 식당에 처음 오시는 상담사님들은 아이들을 만나보면 많이 놀라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입을 열게 하기가 정말 힘든데, 어쩌면 여기 아이들은 처음 만났는데도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술술 하냐고요. 몇 번 와보신 상담사님들이 ‘아이들이 이 공간을 믿기 때문’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여기서 만나는 어른들은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나를 도우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있다고요.”

청소년을 바꾸는 힘은 결국 ‘공동체와 사람’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받지 않고 기부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가의 힘으로 운영한다. 그 밑바탕에는 ‘공동체와 사람이 답이다’라는 이정아 대표의 철학이 있다.

“아이들을 돕는다고 이 기관, 저 기관에 보내면 싫어해요. 낯선 이들에게 몇 번씩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니 자존감



청개구리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이정아 대표와 청년활동가들.



시민활동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마을 작은학교’ 활동.

에 상처를 입는 불쾌한 일이지요. 그래서 다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저나 활동가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요. 믿을 수 있는 자기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핵심이에요.”

이정아 대표는 아이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믿을 수 있는 어른이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았고, 그 역할은 어떤 시설도, 기관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돌보는 마을 공동체가 그의 궁극적인 목표다. **글 편집부**